



EMERiCs

신종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

<http://www.emerics.org/>

2018. 09. 06. | 아프리카중동

「이슈&트렌드」

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(AfCFTA) 추진동향 및 전망

작성 □장종문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

- 2018년 7월 2일 모리타니아에서 열린 제 31차 아프리카 연합(AU) 총회에서 AfCFTA(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)와 관련하여 남아공, 시에라리온, 나미비아, 레소토, 부룬디 등 5개국이 추가 서명함에 따라 AfCFTA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.
- AfCFTA와 관련된 논의는 2008년 우간다에서 열린 AU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다가 2015년부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임.
 - 특히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AfCFTA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음.
 - 그동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역내 주요 경제국들이 관련논의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계획의 현실성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남아공의 참여는 AfCFTA 탄생의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AfCFTA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(WTO) 창설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.
- AU(아프리카 연합)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역내 교역량은 2016년 기준 20%를 넘지 않으며 이는 역내교역이 67%에 달하는 EU 및 58% 수준의 아시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임.
 - 또한 아프리카 교역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역외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AfCFTA를 통해 역내교역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정도가 완화될 여지가 있음.
 - 현재와 같이 역내수출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역외수출의 75% 이상이 원자재성 품목들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경제는 원유와 광물가격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.
 - 또한 역내교역이 증가하면서 제조업과 농식품 가공 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는바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- AfCFTA 관련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그림 1. 아프리카 역외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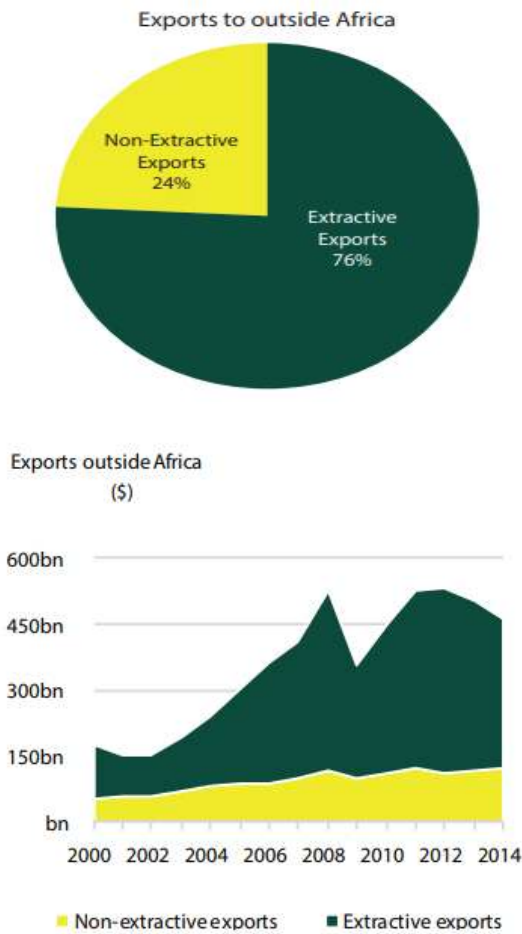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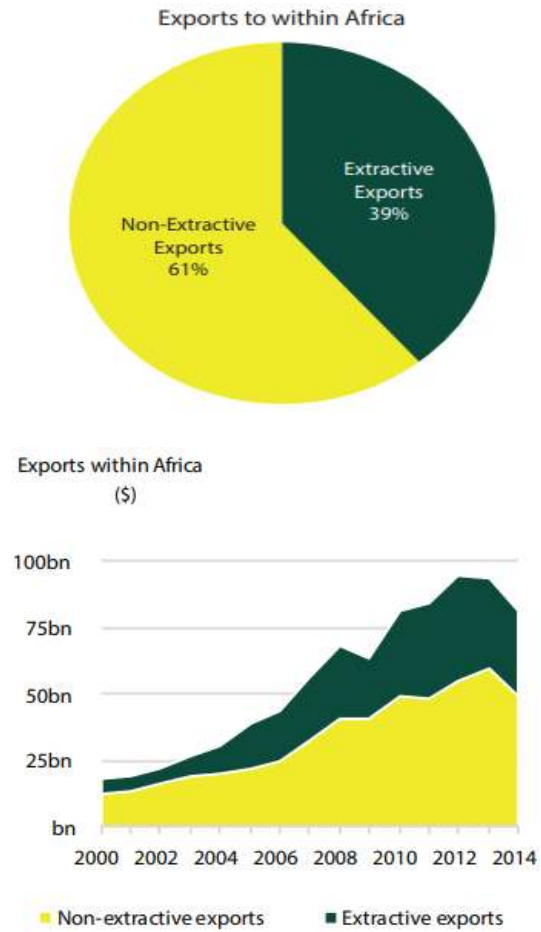
자료: AU (<https://au.int/>)

그림 2. 아프리카 역내수출

자료: AU (<https://au.int/>)

-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주요국들은 AfCFTA를 통해 단순히 역내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 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.

○ 특히 제조업발전을 통해 각국의 보유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제조기업의 아프리카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